

## 수출주력으로 발전기대

IMF사태 이후 우리경제는 정부와 기업, 민간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지난 1999년에는 연간 10.9%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8.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중소기업인들  
은 금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2.8%로  
내다보고 있다

”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조정 내용과 일부 기업들의 책임회피, 그리고 정부 정책의 혼선 등으로 말미암아 2000년도 말부터 2001년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위축 등의 내부적 요인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후퇴에 기인한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면서 그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난해 12월에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2분기부터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5.7%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이 생각하는 금년도 경기전망은 그리 크게 밝지 않다.

중소기업인들은 금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2.8%로 내다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기전반에 대한 예측지수가 작년도 82.0보다는 높은 수치인 102.6으로 나타나 작년도와 비교해 경기가 약간 개선 내지 호전될 것으로 전



신진문 /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이사장

- 1976년 4월 (주)태광수지공업 대표이사
- 1990년 4월 (주)정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1983년~ 현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감사
- 1992년~ 현재 사)한국합기도협회 이사
- 1999년~ 현재 사)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부회장
- 1999년~ 현재 하고금조정협의회 조정위원
- 1999년~ 현재 중소기업청 신지식인 선정

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시점에 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금년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다.

국내 경제전망과 비슷하게 플라스틱업계도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한 업체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요처가 확실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은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외환위기의 충격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 경기순환 국면의 저점 부근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설비의 투자는 과잉된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또 다른 변수는 지난 11월 중국의 WTO 가입 승인으로 겪게 되는 시장의 변화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경쟁력 정도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이나 자동차, 정보통신, 석유화학, 고급가전 등의 품목이나 이러한 품목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본제품으로서 완제품의 수출을 반제품 또는 기초제품의 활성화를 가져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금년도 경기변동을 예측해보면 화학제품은 금년도 비해 내수판매와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자금사정과 원자재조달 그리고 고용 등 전 부분에 걸쳐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설비투자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제품은 작년 정도의 경기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의 호전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와 수출 등 판매가 신장되면서 생산활동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채산성과 자금사정 역시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플라스틱 관련 업종별 산업전망을 보면 PET시트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국내 플라스틱  
업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장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

**플라스틱  
제품은  
소폭의  
호전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한  
여건조성이  
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수출 수요는 많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점차 중요해져 있는 시점에서 수요의 확산이 예상된다.

압출기의 경우 국내수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이라 새로운 제품을 성형하는 신기계가 아니면 기존 시장을 침투한다는 것이 어렵다. 수출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좁은 국내 수요를 볼 때 수출로 눈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다.

여하튼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외부적 환경들이 우리 업계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의 심화와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처하게 위하여 유연한 비용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제 전반으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한계 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원고제공 및 기사제보 포장업계와 관련된  
기사제보와 독자원고를 기다립니다.  
-월간 포장계-